



농수산물식품 수출

Zoom In 49호

I '국산 국화품종 '백마', 중국시장 진출 박차

II '찾아가는 수출현장 종합컨설팅' 추진



III 제7차 한-일 식물검역 기술협력회의 개최



IV 신선농산물 수출검역요건 교육 해마다 실시

농수산물식품 수출 Zoom In 49호 2017. 4. 20(금)

‘18.3.31까지 농수산물식품 수출 전년 동기 대비 4.4% 증가한 22.2억\$

부류별

신선	가공	수산
 26.4%	 3.6%	 16.0%
322백만불	1,335백만불	559백만불
+ 배, 인삼류, 김치 - 장미	+ 음료, 라면, 맥주 - 껌, 커피조제품, 비스킷	+ 참치, 김, 고등어 - 바지락, 오징어, 미역

국가별

*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반영

 ASEAN 467백만불(20.9%)	▶ 말레이시아 Jaya Grocer 연계 신선식품 판촉(4.20~계속) ▶ 싱가포르 RedMart 연계 한국종합식품 온라인 판촉(4.1~계속)	음료(47%), 김(32%) 참치(△17%), 고추(△7%)
 홍콩 112백만불(20.2%)	▶ Elaia 연계 한국가공식품 판촉(3.13~계속)	껌(410%), 딸기(6%) 설탕(△32%), 유자차(△24%)
 미국 275백만불(13.6%)	▶ 중국계마켓 연계 버섯, 배 판촉(2.3~계속) ▶ FoodBazaar 연계 알로에, 쌀과자 등 판촉(3.31~계속)	김(38%), 음료(9%) 껌(△32%), 오징어(△19%)
 EU 156백만불(8.8%)	▶ 프랑스 가르푸 등 연계 한국식품 판촉(1.26~계속)	라면(47%), 참치(10%) 커피조제품(△72%), 김치(△1%)
 일본 488백만불(4.7%)	▶ 마르쿠 연계 대형유통업체 한국종합식품 판촉(1.16~계속)	참치(33%), 껌(3%) 소주(△15%), 김(△12%)
맥주(67%), 인삼류(26%) 라면(△43%), 김(△28%)	 중국 291백만불(△8.3%)	

☆ : 15%이상 / : 5~15% / : 0~5% / : 0~△5% / : △5~△15% / : △15%이하

품목별 이슈

* 실적 : '18. 1. 1 ~ 3. 31



“ 딸기 ”

◇ 베트남, 말린 등 동남아 수요 급증 및 수출 단가 상승으로 수출 증가

28,108천불(15.9%)

▶ 주요 수출국 : 홍콩(10,913천불, 5.8%), 싱가포르(7,065, 7.2), 태국(3,337, 14.8), 말린(2,588, 38.1), 베트남(1,829, 78.5)

“ 음료 ”

◇ 에너지 드링크의 인기로 캄보디아 수출 증가 추세

◇ 커피음료 수출 물량 증가로 전년 동기대비 인니 수출 급증



▶ 주요 수출국 : 캄보디아(18,739천불, 19.7%), 미국(15,783, 9.4), 인니(6,182, 356.2) **99,611천불(32.5%)**



“ 굴 ”

◇ 일본 내 자국산 굴 재고량 감소로 튀김용 냉동굴 수요 증가

13,466천불(29.1%)

▶ 주요 수출국 : 일본(5,736천불, 40.7%), 미국(3,388, 18.4), 홍콩(1,289, 8)

☆ 자세한 동향관련 내용은 aT kati(www.kati.net) > 수출동향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농수산물식품 수출 Zoom In>은 월 1회 발행됩니다 (문의처 : aT 수출기획부 061-931-0816,7)

농진청 이슈



▲ '백마'(2004년 농진청 육성)



▲ 품종설명회(중국 Kunming)

국산 국화품종 '백마', 중국시장 진출 박차

농촌진흥청은 지난 2년간 '백마' 품종의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해 국내 수출업체와 중국 현지 생산업체와의 협력을 적극 지원해 왔다. 3월 29일엔 중국 Kunming에서 현지 유통업체 및 관련자 등 120여 명을 대상으로 '백마'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품종설명회를 가졌다.

'백마'는 꽃 수명이 길고 순백색의 풍성한 볼륨감과 연초록의 중심부를 가졌으며 봉오리 수확으로도 수출 시장에서 문제없이 개화한다. 앞으로 중국내 생산을 위해 여름철 일장관리에 관한 기술 등을 협의하여 국화 소비시장으로 일본 못지않게 중요한 중국에서도 '백마' 품종의 명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것이다.

'지역특화 가공 농식품' 수출상담회 개최

신규로 수출을 희망하거나 수출을 확대하고자하는 지역특화 가공품의 수출상품화를 지원하기 위해 국내 21개 수출업체를 초청하여 상담회를 진행했다. 지난 해 6월 '수출 경영체 협의회 출범식'을 계기로 진행된 상담회에 이어 두 번째이다. 수출업체는 독창적인 제품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경영체는 수출에 필요한 전략을 듣는 기회의 장이 되었다. 이 날 계약에 성사되거나 수출이 유망한 것으로 선정된 제품은 소정의 요건들을 검토하여 향후 1년 내에 수출 또는 수출상품화를 위한 컨설팅을 할 예정이다.



기관합동 '찾아가는 수출현장 종합컨설팅' 추진



< 3월 >

- ▶ 7일 (전남 영광, 딸기)
- ▶ 8일 (경북 고령, 딸기)
- ▶ 13일 (경기 연천, 단호박)
- ▶ 14일 (전북 남원, 파프리카)
- ▶ 21일 (전북 장수, 사과)
- ▶ 28일 (강원 철원, 파프리카)

< 4월 >

- ▶ 2일 (경북 영덕, 대만수출배추ID농가)
 - ▶ 12일 (전남 보성, 녹·홍차)
 - ▶ 18일 (전남 장성, 사과)
 - ▶ 25일 (전남 곡성, 멜론)
- *문의:수출농업지원과(063-238-0684)

* 종합컨설팅은 농식품부(총괄), 농진청(주관), 검역본부, 농관원, aT, 농협 합동으로 추진합니다.

☆ 농진청 이슈는 월 1회 발행됩니다. (문의처 : 농촌진흥청 수출농업지원과 063-238-0674)

식물검역 이슈



제7차 한-일 식물검역 기술협력회의 개최

◇ 2018.3.27~28일 양일간 일본 도쿄에서 한-일 양국 대표단은 식물검역 분야 기술협력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였다. 올해 제7차 한-일 식물검역 기술협력회의에서는 로마에서 개최되는 제13차 국제식물보호협약 총회 공동협조방안, 국산 사과, 배 일본 수출재개 및 한-일 공동분포 병해충에 대한 일본의 비검역병해충 확대지정 방안에 관하여 협의하였다.

▶ 한-일 식물검역 기술협력회의 : 식물검역기술 분야의 국제협력과 다자간 국제협력을 위하여 2011년부터 매년 개최

제71차 WTO/SPS 정례회의 계기 양자회의

◇ 검역본부 대표단은 '18.2.27~3.2 4일간 스위스 제네바 WTO 사무국에서 개최된 제71차 WTO/SPS 정례회의에 참석하였다. 이번 회의 기간 동안 대만을 비롯한 멕시코, 인도네시아, 중국, 필리핀, 태국 대표단과 비공식 양자 회의를 통해 각 국가들과의 수출 협상 현안에 대한 논의를 실시하였다. 특히, 우리 나라는 참다래(대만), 입병재배버섯(멕시코), 사과/배/모과/버섯(인도네시아), 딸기(필리핀) 품목의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하여 해당 국가 대표단에 조속히 병해충위험분석(PRA) 절차를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신선농산물 수출검역요건 교육 해마다 실시

◇ 검역본부는 수출농산물 재배농가, 생산자단체, 수출업체 및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수출 상대국 검역요건에 대한 교육을 매년 실시해오고 있다. 미국과 대만으로 수출하는 사과와 배 재배농가가 교육대상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그 외에도 감귤, 딸기, 단감, 포도, 채소류 및 화훼류에 대해서도 실시하고 있다. 농가에서 재배 중 활용할 수 있는 방제기록부와 예찰기록부도 제작하여 배부함으로써 검역 요건을 준수할 수 있도록 길라잡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 '17년 수출검역 교육실적 : 9,847명(194회)



☆ 외국의 농산물 수출검역요건은 농림축산검역본부(www.qia.go.kr) > 수출식물검역정보 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식물검역 이슈는 월 1회 발행됩니다. (문의처 : 농림축산검역본부 수출지원과 054-912-0623)